

이펙티브 자바 CP.1

① 작성 일시	@2022년 12월 30일 오후 8:23
① 최종 편집 일시	@2023년 1월 2일 오후 8:42
◈ 유형	이펙티브 자바
◎ 작성자	
≗≗ 참석자	

11 객체 생성과 파괴

- 1. 생성자 대신 정적 팩토리 메소드를 고려해라
- 2. 생성자에 매개 변수가 많다면 빌더를 고려해라
- 3. private 생정자나 열거 타입으로 싱글턴임을 보증해라
- 4. 인스턴스화를 막으려거든 private 생성자를 사용해라
- 5. 자원을 직접 명시하지 말고 의존 객체를 주입해라
- 6. 불 필요한 객체 생성을 피해라
- 7. 다 쓴 객체 참조를 해제해라
- 8. finalizer, cleaner 사용을 피해라
- 9. try-finally 보다는 try-with-resources를 사용해라

11 객체 생성과 파괴

▼ 1. 생성자 대신 정적 팩토리 메소드를 고려해라

public ClassName(), static getWhat()

클래스는 public 생성자 대신 정적 팩토리 메소드를 제공할 수 있다.

정적 팩토리 메소드의 장점

- 이름을 가질 수 있다.
 명확화 할 수 있다.
- 2. 호출할 때마다 인스턴스를 새로 생성하지 않아도 된다. lib 같이 자주 쓰는 파일에 활용 가능해보인다.
- 3. 반환 타입을 하위 타입 객체로 반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.
- 4. 입력 매개변수에 따라 매번 다른 클래스의 객체를 반환할 수 있다.
 - 3, 4 항목 안에서
 - 이건 단점이 아닌가 생각 했지만, Map 을 예로 생각해보면 편하다. TreeMap, LinkedMap, HashMap 등을 입력 변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는건, 유연한 개발이 가능 할 것으로 보인다.
- 5. 정적 팩토리 메소드는 작성하는 시점에는 반환할 객체의 클래스가 존재하지 않아도 된다.

```
// Order 라는 interface 안에 구현체가 없어도 반환 가능하다.
public static List<Order> getOrders() {
  return new ArrayList<>>();
}
interface Order {
}
```

6. 서비스 제공자 프레임워크를 만드는 배경이된다. (ex. JDBC)

정적 팩토리 메소드의 단점

1. 상속을 하려면 public 이나 protected 생성자가 필요하니, 정적 팩터리 메소드만 제공하면 하위 클래스를 만들 수 없다.

어쩌면, 이 제약은 상속보다 컴포지션(3-4)을 사용한다면, 오히려 장점일 수 있다.

2. 정적 패터리 메소드는 프로그래머가 찾기 어렵다.

흔히 사용하는 명명 방식

```
// from 매개수를 하나 받아서 해당 타입의 인스턴스를 반환하는 형변환 메소드 Data d = Date.from(instant);

// of 여러 매개변수를 받아 적합한 타입의 인스턴스를 반환하는 집계 메소드 Set<Rank> faceCards = EnumSet.of(JACK, QUEEN, KING);

// instance 혹은 getInstance 매개변수로 명시한 인스턴스를 반환하지만, 같은 인스턴스임을 보장하지 않음 StackWalker luke = StackWalker.getInstance(option);

// create 혹은 newInstance, 위와 같지만, 매번 새로운 인스턴스를 반환함을 보장함 Object newArray = Array.newInstance(classObject, arrayLen);

// getType getInstance 와 같으나, 생성할 클래스가 아닌 다른 클래스에 팩터리 메소드를 정의할 때 사용한다. FileStore fs = Files.getFileStore(path);

// newType newInstance 와 같으나, 위와 같음 BufferedReader br = Files.newBufferedReader(paht);

// type 위 getType, newType의 간결한 버전 List<Complaint> litany = Collections.list(legacyLitany);
```

▼ 2. 생성자에 매개 변수가 많다면 빌더를 고려해라

정적 팩토리 메소드든, 생성자든 선택적 매개 변수가 많다면, 점층적 생성자 패턴, 자비빈즈 패턴, 빌더 패턴 가 있다.

1. 점층적 생성자 패턴

```
public class Unit {
  private final int hp;
  private final int mp;
  private final int moveSpeed;
  private final int damage;
  private final int armor;
  private final int shield;
```

```
public Unit(int hp, int moveSpeed, int damage, int armor) {
    Unit(hp, 0, moveSpeed, damage, armor, 0);
}

public Unit(int hp, int mp, int moveSpeed, int damage, int armor) {
    Unit(hp, mp, moveSpeed, damage, armor, 0);
}

public Unit(int hp, int moveSpeed, int damage, int armor) {
    Unit(hp, 0, moveSpeed, damage, armor, 0);
}

public Unit(int hp, int mp, int moveSpeed, int damage, int armor, int shield) {
    this.hp = hp;
    this.mp = mp;
    this.moveSpeed = moveSpeed;
    this.damage = damage;
    this.armor = armor;
    this.shield = shield;
}
```

- 이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만들려면 원하는 매개변수를 모두 포함한 생성자 중 가장 짧은 것을 골라 호출하면 된다. 여기서 몇몇 오버로딩된 생성자들은 0이라는 값을 넘기는 매개 변수들이 있다. 지금은 매개 변수 수가 많이 없어서 괜찮게? 보일 수 있지만 수가 100개 이상이라면 해당 코드를 변경하기 어려울 것이다.
- 요약, 사용은 할 수 있겠으나, 매개변수 개수가 많아지면 생성자를 늘려가면서 코드를 작성해 야하고, 해당 코드의 변경, 읽기 어려워 진다.

2. 자바빈즈 패턴

```
public class Unit {
 private final int hp;
 private final int mp;
 private final int moveSpeed;
 private final int damage;
 private final int armor;
 private final int shield;
 public Unit () {}
 public void setHp(int hp) { this.hp = hp; }
 public void setMp(int mp) { this.mp = mp; }
 public void setMoveSpeed(int moveSpeed) { this.moveSpeed = moveSpeed; }
 public void setDamage(int damage) { this.damage = damage; }
 public void setArmor(int armor) { this.armor = armor; }
 public void setShield(int shield) { this.shield = shield; }
Unit zealot = new Unit();
zealot.setHp(100);
zealot.setMoveSpeed(8);
zealot.setDamage(16);
zealot.setArmor(0;
zealot.setShield(100);
```

매개변수가 없는 생성자로 객체를 생성 후 setter 메소드를 통해 매개변수의 값을 설정하는 방식이다.

- 자바빈즈 패턴으로는 생성자 수를 늘리지 않아도 되어 점층적 생성자 패턴의 단점이 더이상 보이지 않는다. 하지만, 단점으로 객체 하나를 만들기 위해 메소드를 여러 개 호출해야 하고, 객체가 완전히 생성되기 전까지는 **일관성(멀티 스레드 환경이라고 가정)**이 무너진 상태이다. 즉, 클래스를 불변(3-3)으로 만들 수 없으며, 스레드 안정성을 얻기 위해선, 추가 작업을 해야 한다.
- 요약, 점층적 생성자 패턴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겠으나, 다른 단점들이 크다.

3. 빌더 패턴

```
public class Unit {
 private final int hp;
 private final int mp;
 private final int moveSpeed;
 private final int damage;
 private final int armor;
 private final int shield;
  public unit(Bulider builder) {
   hp = builder.hp;
    mp = builder.mp;
   moveSpeed = builder.moveSpeed;
   damage = builder.damage;
   armor = builder.armor;
   shield = builder.shield;
  public static class Builder {
    // 필수 매개변수
    private final int hp;
    private final int moveSpeed;
    private final int damage;
    private final int armor;
   // 선택 매개 변수 기본값으로 초기화
    private int mp = 0;
    private int shield = 0;
    public Builder(int hp, int moveSpeed, int damage, int armor) {
     this.hp = hp;
      this.moveSpeed = moveSpeed;
     this.damage = damage;
     this.armor = armor;
    public Builder mp(int val) {
     this.mp = val;
     return this;
    public Builder shield(int val) {
     this.shield = val;
     return this;
    public Unit build() {
      return new Unit(this);
 }
}
Unit unit = new Unit.Builder(100, 6, 16, 0).shield(100).build();
```

- Unit 클래스는 불변(어떤 변경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뜻 private, set 메소드 존재 X)이며, 모든 매개 변수의 기본값을 한 곳에 모아 둔다. 빌더의 setter 메서드는 빌더 자신을 반환하기 때문에, 연쇄적 호출이 가능하다. (aka. 플루언트 API, 면세드 연쇄)
- 빌더 패턴은 계층적으로 설계된 클래스와 함께 사용하기 좋다.
 - 각 계층의 클래스에 관련 빌더를 멤버로 정의하고 추상 클래스는 추상 빌더를, 구체 클래스는 구체 빌더를 갖게 한다.

```
public abstract class Unit {
    public enum Skill { CLOCKING, STORM, BURROW, LOCKDOWN }
    final Set<Skill> skills;
   final int hp;
   final int moveSpeed;
   final int damage;
   final int armor;
   abstract static class Builder<T extends Builder<T>>> {
       EnumSet<Skill> skills = EnumSet.noneOf(Skill.class);
       public T addSkill(Skill skill) {
           skills.add(Objects.requireNonNull(skill));
           return self();
       abstract Unit build();
       // 반드시, 하위 클래스는 이 메서드를 오버라이딩 하여 this 를 반환하도록 해야한다.
       protected abstract T self();
   Unit(Builder<?> builder, int hp, int moveSpeed, int damage, int armor) {
       skills = builder.skills.clone(); // item 50 에서 다뤄볼 내용
       this.hp = hp;
       this.moveSpeed = moveSpeed;
       this.damage = damage;
       this.armor = armor;
   }
}
public class Ghost extends Unit {
   private final int mp;
    public static class Builder extends Unit.Builder<Builder> {
       private final int mp;
       public Builder(int mp) {
           this.mp = mp;
       // 오버라이딩에서 반환 타입을 해당 하는 하위 클래스로 반환하도록 한다.
       // aka. 공변 반환 타이핑 - 객채 생성시 캐스팅하지 않아도 된다.
       @Override
       public Ghost build() {
           return new Ghost(this);
       @Override
       protected Builder self() {
           return this;
   }
```

• 더 나가아가기, 유효성 검사의 타이밍은 빌더 생성자와 메서드에서 입력 매개변수를 검사하고, build 메서드가 호출하는 생성자에서 여러 매개변수에 걸친 불변식을 검사한다.

▼ 3. private 생정자나 열거 타입으로 싱글턴임을 보증해라

- **싱글턴**이란 인스턴스를 오직 하나만 생성 할 수 있는 클래스를 뜻 함 주로 stateless 객체나 설계상 유일해야 하는 시스템 컴포넌트 단점으로는, 이를 사용하는 클라이언트 코드를 테스트하기 어렵다.
- 싱글턴을 만드는 방식
 - 1. public static 멤버 변수가 final 인 경우
 - 생성자는 private 로 감쳐두고, 유일한 인스턴스를 접근할 수단 public static final 멤버 변수를 하나 둔다.
 - private 생성자는 Singleton.INSTANCE 를 초기화할 때, 딱 한 번 호출된다.
 - public 이나 protected 생성자가 없음으로 클래스가 초기화 될 때 만들어진 인스턴스가 전체 시스템에서 하나뿐이 보장된다.\
 - 장점
 - 해당 클래스가 싱글턴임이 API에 명백히 드러난다.public static 필드가 final이니 절 대로 다른 객체를 참조할 수 없다.
 - 。 간결하다.

```
public class Singleton {
  public static final Singleton INSTANCE = new Singleton();
  private Singleton() {...}
}
```

- 2. 정적 팩터리 메소드를 public static 멤버 변수를 제공하는 경우
 - Singleton.getInstance 는 항상 같은 객체의 참조를 반환함으로, 인스턴스를 결코 만들어 지지 않는다.
 - 장점
 - 언제든 싱글턴에서 여러 인스턴스를 반환하는 방식으로 변경 가능하다.

- 。 원한다면 정적 팩터리를 제네릭 싱글턴 팩터리로 만들 수 있다.
- 。 정적 팩터리의 메서드 참조를 공급자(supplier)로 사용할 수 있다.

```
Supplier<Singleton> singletonSupplier = Singleton::getInstance;
Singleton singleton = singletonSupplier.get();
```

```
public class Singleton {
  private static final Singleton INSTANCE = new Singleton();
  private Singleton() {...}
  public static Singleton getInstance() { return INSTANCE; }
}
```

- 위 두 방식 모두의 단점
 - 권한이 있는 클라이언트에서 리플렉션 API 인 AccessibleObject.setAccessible 을 이용 해 private 생성자를 호출 할 수 있다.
 - 해결방안 private 생성자에 해당 코드를 추가한다.

```
private Singleton() {
   if(INSTANCE != null){
    throw new RuntimeException("생성자 호출이 불가능합니다.");
  }
}
```

- 직렬화된 인스턴스를 역직렬화할 때 새로운 인스턴스를 만들어서 반환한다. 역직렬화는 기본 생성자를 호출하지 않고 값을 복사해서 새로운 인스턴스를 반환한다. 그때 사용되는 것이 readResolve 라는 메소드이다.
 - 해결방안 아래 코드를 추가한다.

```
private Object readResolve() {
  return INSTANCE;
}
```

- ∘ 번외. (<u>백기선님의 싱글톤 강의</u>)
 - 만약, 위 싱글톤 내용(이른 초기화)들이 무거운 객체들이고 언제 사용될지 모를 경우 비효율 적인 객체를 생성해서 보관 할 수 있다. 이를 방지해 맨 처음 사용될 때, 사용하는 방식이 있다.
 - double checked locking 복잡한 방식

```
public class Singleton {
  public static volatile Singleton INSTANCE;
  private Singleton() {}
  public static Singleton getInstance() {
   if (INSTANCE == null) {
     // 동시 접근시 막기 위함.
     synchronized (Singleton.class) {
```

```
if (INSTANCE == null) {
    INSTANCE = new Singleton();
}

}
return INSTANCE;
}
```

• static inner class - 비교적 간단한 방식

```
public class Singleton {
  private Singleton() {}

  private static class SingletonHolder {
    private static final Singleton INSTANCE = new Singleton();
  }

  public static Singleton getInstance() {
    return SingletonHolder.INSTANCE;
  }
}
```

- ▼ 4. 인스턴스화를 막으려거든 private 생성자를 사용해라
- ▼ 5. 자원을 직접 명시하지 말고 의존 객체를 주입해라
- ▼ 6. 불 필요한 객체 생성을 피해라
- ▼ 7. 다 쓴 객체 참조를 해제해라
- ▼ 8. finalizer, cleaner 사용을 피해라
- ▼ 9. try-finally 보다는 try-with-resources를 사용해라